

국민통합을 위한 호소문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약 1백일 간 대한민국은 크나큰 혼돈의 소용돌이에 서 있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모두가 함께 나아가야 하지만 광장은 여전히 각각의 목소리로 시끄럽습니다.

“嗔是心中火 燒盡功德林”

성냄은 마음의 불꽃으로 공덕의 숲을 모두 태워버린다고 했습니다. 우리 내부의 혼란 상황에 더해 일본, 중국, 북한 등 삼면의 국제정세가 모두 엄중합니다. 대한민국의 위상이 위태롭습니다. 더 이상의 혼란은 매우 위험합니다. 오직 대한민국의 미래만을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큰 가르침의 그물을 펼쳐서 사람들과 천신들의 물고기를 건져 올린다. 張大教網渡人天魚” 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드러난 국민들의 여망과 특검을 통해 밝혀진 여러 가지 법적 쟁점들을 잘 평의해 전원 합의로 지혜롭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권은 국민 통합과 국가 발전이라는 대명제 속에서 “퇴피삼사退避三舍”의 고사처럼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해야 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가 국론분열을 최소화하는 현명한 판단을 내리고 여러 정치세력들이 국가 전체의 이익을 위해 한걸음씩 양보한다면 광장은 다시 고요하고 여여함을 찾을 것입니다.

진보는 차별 없는 평등한 세상을 향한 민주적 가치와 방향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수는 국가 안보와 경제 발전을 위해 안정적으로 사회 통합을 추구하여 더 이상의 갈등을 겪지 않고 함께 손잡고 나아가기를 기원합니다.

봄은 이미 대화가지 위에 피었습니다. 이를 보지 못하고 각자의 봄을 찾아 헤매서는 안되겠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은 우리 사회의 화합과 밝은 미래를 위해 계속 정진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모두의 간절한 소망과 기도가 실현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불기2561(2017)년 3월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일행

대한불교조계종 호계원장 성타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장 현응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장 지홍

대한불교조계종 전국교구본사주지협의회장 고운사 주지 호산

대한불교조계종 전국비구尼회장 육문